# 구도심서 광주의 멋과 맛을 즐기다

#### 내달 선뵈는 '광주폴리Ⅲ

광주비엔날레재단 설명회 뷰·쿡·뻔뻔·GD·미니폴리 5개 11개 작품 문화전당 2km내 설치 구도심 활성화·시민 참여에 중점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3차 광주폴리' 중 하나로 설치된 미니폴리 '인피니트 엘리먼츠'.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뷰폴리에서 광주 멋 감상하고, 쿡폴리에서 광주 맛 즐 기고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건립되고 있는 '광주폴리Ⅲ'가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던 1·2차 폴리에 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0일 천의영 총감독, 유 우상·위진복 큐레이터, 강권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 작품 소개와 추진 현황 을 밝혔다.

'광주폴리Ⅲ'는 뷰(View)폴리, GD(Gwangju Dutch) 폴리, 쿡(Cook)폴리, 뻔뻔(FunPun)폴리, 미니폴리 등 5 개로 구성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총 11작품이 설치되고 있다.

전일빌딩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던 '뷰폴리'설치장소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훈 건축가와 독일 유명 미디어아티스트 겸 건축가 얀 에들러가 작품 제작에 땀을 쏟고 있다. 전면에는 투명유리와 계단, 6층 옥상에는 전망대를 겸한 조형물을 설치한다. 가로 20 m·세로 5m 조형물은 회전하는 색색의 삼각기둥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여러 형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뷰폴리'에서 동구청, 서석초교를 지나 산수동 푸른 마을공동체센터와 산수마당에 이르면 네덜란드창조산 업기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GD폴리'가 나온다. 서울역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문을 열 예정인 '쿡폴리' 조감도.

고가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설계자인 위니 마스와 조병 수 건축가가 만나 철거되고 있는 옛 건물을 모티브로 작 품을 제작한다. 집 모양 건축물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땅 속에 박힌 듯한 건축물 사이로 산책을 할 수 있게 기 획했다.

서울 경리단길을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참여해 화제를 모은 '쿡폴리'는 산수도서관 인근에 자리잡았다. 폐가였던 한옥 2채를 리모델링해 유리온실 카페, 한식 레스토랑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4개월간 서울에서 장 셰프에게 교육을 받은 청년 교육생 7명이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맡는다. 총 매출액 중 20%는 재단에 납부해 점차 쿡폴리를 확장하고, 청년 창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한 '뻔뻔폴리'(김찬중 건축가·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충장로 5가까지 총 4작품을 선보인다. 1차 폴리 '광주사랑방'을 비롯해 충장로 4가 연다방, 달콤커피, 거북이안경건물 외벽에 설치한다. 사랑방에 설치된 작품은 전화부스 형태로, 문을 열면 미디어아트가 보이는 등 빛과 충장로  $4\sim5$ 가 성격(한복·주얼리)을 반영했다.

마지막 미니폴리는 이미 2개 작품이 완성돼 비엔날레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국형걸·신수정 작가가 제작한 '인피니트 엘리먼츠'는 뫼비우스 띠 모양 철재 프레임에 LED를 달아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만든다. 덴마크 아르후스대학교 건축학과 라이프 호그펠트 한센 교수와 학생 12명이 함께 만든 '스펙트럼'은 돛을 단 뗏목 모양이다. 도심 곳곳을 이동하는 어린이 대상 놀이용 폴리다.

전 총감독은 "기존 폴리가 무거운 주제로 예술성을 강 조했다면 3차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 했다"며 "향후 만들어지는 과정을 책으로 만드는 등 스 토리텔링 작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폴리(Folly)'는 본래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뜻하지만 '광주폴리'는 기능적인 역할을 더해 도시 재생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난 2011년 광주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로 추진됐으며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1차 11개, '인권과 공공 공간'을 주제로 2차 8개가설치돼 있다. 문의 062-608-426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기리

-

'3인의 비루투오소 가을 콘서트'

### 14일 광주문예회관 '천원의 낭만'

'제79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 회관 소극장에서 '3인의 비루투오소 가을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기 리, 첼리스트 최주연, 피아니스트 김연 씨가 출연한다.

힌데미트의 '첼로 소나타 작품25번 전 악장'을 시작으로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4번 전 악장',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차이코 프스키의 '카프리치오소 소품',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멘델스존의 '피아노트리오 제1번 전 악장'을 연주한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 박기리씨는 현

재 빛고을 페스티벌 앙상블리더, 광주시 립교향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최주연씨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광신대 조교수로 재임 중인 김연씨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한편, '천원의 낭만' 공연은 광주시,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주 관하며 매달 두번째 월요일마다 열린다. 입장료 1000원.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www.gjasia.org) 참조.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

## 가을 무등산…환희 넘치는 色의 세계

11~17일 은암미술관 '정홍기'전



▶무등정취

일상 풍경에서 느낀 감동을 작품에 담고 있는 정홍기 고구려대 교수가 11~17일 은암미술관에서 '정홍기'전을 연다.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남도를 비롯한 한국 자연을 그린 유화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다소 소박한 감정으로우리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외관적인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내면의 사유를 탐구해 서정적인 정서가 숨어있는것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는 산이다. 청 아한 하늘 아래 낙엽으로 물든 무등산을 그린 '무등정취'부터 운무에 휩싸인 봉 우리들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설악 운해'까지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 '능소화', '모란', '목련', '장미' 등 꽃들의 향연도 펼쳐진다. '녹차사랑', '일출', '월출갈대'에서는 생생한 현장감 이 묻어난다.

정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우회 회장, 광주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 심의위원,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 이사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예총 레지던시 오픈 기획전 11~17일 아시아창작스튜디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백련갤러리에서 레지 던시 프로그램 오픈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창작스튜디오에 머물고 있는 작가들이 그동안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서양화 조규철·윤 병학·최대주·박유자·신호재·김병모, 조각 김기범, 공예 김보미, 미디어 성유진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또 극단 터(연극), 인문학연구회(문학), 다문화M오케스 트라(음악)도 참여해 장르간 융복합 예술을 시도한다.

=다(듬쇡)도 참어에 성드신 중녹합 에울을 시도한다. - 김기범 작가는 '자연으로부터'를 선보인다. 대리석 위 자 리잡은 정육면체 철재 조형물 사이로 한송이 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작품이다. 차가운 인간세상을 녹이는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김보미 작가는 '청자 커피메이커 세트' 를 제작했다. 청자로 만든 원두분쇄기, 주전자, 컵 등은 동· 서양 문화를 녹여내렸다. 그밖에 최대주 작가의 'chaos'는 공중에 떠 있는 소재로 불안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지역예술가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다. 오픈식은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문의 062-528-9207.

된다. 눈의 002-326-92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보미 작 '청자 커피 메이커 세트'



황영성 · 박석규 · 송 용 · 박동인 · 박종수 · 신동언 · 박성현 · 전뢰진 · 정윤태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예술의거리 서문입구)



